찰나찰나 놓고 가는데 무슨 짊어진 게 있는가

☞ 19면에서 계속

독성 따로 있고 용신 따로 있고 지신 따로 있고 조왕 따로 있고 목신 따로 있고, 이렇게 각각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소견입니다. 부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북하면 삼십이상의 구족함과 삼십이응신의 구족함을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고 들이는 데 조금도 걸림 없는 구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부처님은 항상 나투면서, 사람에게만 나투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에게도 나투어요. 구더기를 건지려면 구더기가 돼 줘야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같이 한마음으로 돌아가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그렇게 찰나찰나 나툴 때에 어떤 것을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가 됐을 때 부처님이라고 해야 옳을까요, 관세음이 됐을 때 부처님이라고 해야 옳을까요, 지장이 됐을 때 부처님이라고 해야 옳을까요? 지장이라는 건 마음 깊은 속에 보배와 같은 것이 흙 속에 묻혔다고 해서 바로 지장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주인공 속에, 즉 말하자면 우주 섭류의 소용돌이, 법계의 소용돌이, 그 소용돌이 속에 나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한마음 속에 말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 부처님을 믿고 다니더라도 둘 아니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법당에 오면 부처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니 어찌 일체 만물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다르며, 법이 다르며, 움죽거리는 게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불과 법이 둘이 아닐지언댄 승보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이건 그냥 따라다니는 껍데기입니다. 그런 껍데기 차와 같은 거죠. 운전수가 가자는 대로 가는 차.

그러나 그 껍데기도 소용없는 게 아니죠. 그건 화두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화두죠. 내가 없었더라면 우주도 있는지를 몰랐고 이 세상도 있는지를 몰랐고 상대도 있는지를 몰랐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수화풍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나왔죠. 그렇듯이 지수화풍이 있기 때문에 일체, 물질적인 이 모든 것이 지수화풍이 모여서 움죽거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지수화풍이, 껍데기가 움죽거리는 것보다도 유(有)의 법과 무(無)의 법이 같이 움죽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마음 따로 있고 육체 따로 움죽거리고 이러는 게 아니죠. 마음 내는 것 따로 있고 움죽거리는 육체 따로 있고, 마음 내는 놈 따로 있고 마음 내기 이전 놈이 따로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놈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내가 여기다가 갖다 놓지 않으면 죄를 사해 주지 않겠지. 여기 칠성님 전에 놓지 않으면 우리 남편이나 자식들의 명이 길지 않겠지. 약사보살한테 놓지 않으면 병이 안 낫겠지.' 이런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고정됨도 없을 뿐더러 고정관념도 없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있는가. 모두가 공했어요. 공한 것은 없어서 공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한 찰나 찰나 나투며 돌아가기 때문이죠. 어린애 적의 나를 나라고 할까요, 늙었을 적의 나를 나라고 할까요? 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고 말씀하신 게 꽉 찼기 때문에, 한 물건이 꽉 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원효 대사는 한 물건이 없다고 하기 이전에,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 놓으니까 낙엽을 일부러 갖다가 뿌려 놓으면서, 잘못 쓸었다 이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음을 가난하게 가진다면 항상 바둥거리고 지혜로운 생각이 안 납니다. 왜 놓지를 못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신발 벗어 놓고 들어오듯 그렇게 착을 두지 말고 놓아라 이겁니다. 본래 놓고 가는 거니까, 본래 제자리걸음으로 끝 간 데 없이 놓고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항상 이게 옳으니 그게 옳으니 하고 따지거든요.

그렇게 따지는 것은, 이건 배고 이건 돛대고 이건 사공이고 이건 물이고 이렇게 따지는 것은 교리에 관한 건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는 목마르면 직접 그냥 마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불제자로서 수십 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실천이 아니라면 소용없는 겁니다. 목마른데 물을 보고도 못 먹는다면 '아, 여기 이렇게 좋은 물이 있다더라.' 하고 보고 듣고 해도 자유스럽게 떠 먹지 못하고 떠 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묵은 빚을 갚으며 햇빛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짊어지고 나온 것이, 즉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는 겁니다. 내가 콩씨 얘기 했듯이 말입니다. 작년 콩씨를 심었더니 올해 콩나무로 화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콩씨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천지 어디 있습니까! 콩나무에 콩이 열렸지요. 작년 콩씨는 화했잖아요. 한 찰나에 화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어요. 무조건 없는 거라고요.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없어요. 현재는 공해 버렸다 이 소리예요. 공해 버렸다. 그러니 짊어진 게 없어요. 찰나찰나 놓고 가는데 무슨 짊어진 게 있느냐 이거예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된 행이 있어요? 근데 왜 마음으로 붙들고 늘어져요? 하나도 짊어진 것이 없는데 일부러 의식적으로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짊어졌다고 해 놓고 짊어짐을 받는 거죠. 깔축없이 자기 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둑질을 해도 한 게 없습니까? 허허허….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자동적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계율을 알고 교양을 알고 상식을 알고, 그리고 좋은 거를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계율은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250계나 500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 놓을 필요도 없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이름 지어 놓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자기가 시시각각으로 보고 듣고 살고 움죽거리는데, 인간이라면 그대로 질서를 지키고…. 계율이라고 하기 이전에 인간은 그렇게 지켜야 하지 않나요? 그거는 인간으로 나왔다면 다 아는 바죠. 그러니 더 나아가서 우리는 뛰어넘을 것이 없이 뛰어넘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죄가 있네 없네, 과거의 업보가 있네 없네, 팔자가 있네 없네, 조상의 탓이네 아니네, 동쪽이 무슨 뭐, 삼살방이 들었네, 올해 삼살방이 들어서 집을 못 짓네, 이사를 마음대로 못 가네 하고 잠재의식 속에 아주 구태의연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자기가 미신 짓을 하니까 미신이 되죠, 네? 미신 짓을 하지 않는데 미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좋은 날을 잡아서 결혼도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좋은 날이면 그게 바로 좋은 날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님 법이고요.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여러분의 생활이 따로 있고 가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왜 그런 생각을 해서 막아 놓고 막힘을 받고, 구덩이를 파 놓고 구덩이 속에 빠져서 울고 그럽니까. 몸이 아프다고 그러더라도 한번 생각해 봐요. 몸이 아프다 할 때는 '허허, 주인공! 병을 나게 한 것도 네놈이니 낫게 할 수 있는 놈도 바로 네놈이 아닌가.' 하고 한번 뒤집어 보라고요. 그렇게 멋진 도리와 그 멋진 불법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께도 그렇고, 선조들이 그렇게 법을 구하려고 애쓰면서 쓰러져 갔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운 생각도 없어요? 또 한편 우리가 물을 쓰지 못하면 죽는데 물한테 고마운 줄 몰라요? 불도 고맙고 흙도 고맙고 바람도 고맙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근거지가 되는 거름이에요. 우리들 생활의 거름이고요. 그러니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었을 때는 자기가 여기 법당에 왔으니까 부처가 있는 거지 자기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없어요.

나는 이날까지 잘해 달라고, 내 생명을 살려 달라고 해 본 예가, 손을 꼽고 타의에 빌어 본 예가 한 번도 없어요.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것이죠. 또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긴 거구요. 그러니 만약에 공에 빠진다면 공의 노예가 될 것이고 물질에 빠진다면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질과학으로써 첨단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마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마음 없이 과학을 연구했을까요? 그리고 발전을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에 말려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친 것이죠. 그러니 지금 물질적으로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마음으로써, 정신력으로써 사용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 이거죠. 부처님께서 물질에 말려들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부처님 몸뚱이, 저 모습에 말려들라고 그러신 게 아니죠. "너희가 네 마음을 알면 내 마음도 알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 네 마음을 안다면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니라. 둘이 아닌 까닭에 나툼 또한 둘이 아니니라." 나툼이 둘이 아닐지언댄 그걸 이름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열반을 못 했는데 그냥 죽는다고 열반인가요? 살아생전에 깨닫지 못한다면 열반이 아니다 이 소리죠.

우리가 어린애를, 핏덩어리를 낳아서 자라지도 않았는데 사회에 나가서 지금 무엇을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나를 깨닫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기 위해서 또 죽어야 해요. 너와 나와 둘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와 나와 둘이 아니게 천차만별의 그 뜻에 응하고 응해 주는 그 나툼을 알기 위해서 또 죽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마땅히 세 번 아닌 세 번을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놓고 가거라. 본래 놓고 가는 거다. 고정되지 않아서 그대로 너라는 걸 세울 수 없으니 아주 강한 믿음과 물러서지 않는 패기와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이것을 가질 때에 내 몸뚱이 죽고 사는 거를 다 공의 소용돌이 속에 그냥 팽개칠 수 있는, 강렬하게 팽개칠 수 있는 아마 그런 멋있는 대장부가 될 거다 이겁니다. 더 먹고 더 살면 뭘 하고 덜 먹고 빨리 죽으면 뭘 하느냐 이거예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8년 3월 4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발을 휙 벗어 놓고는 아무 걸림이 없이 여기 들어오듯,
집 안에서 걸레를 빨아서 휙 던져 놓듯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금 찰나찰나 나투면서
진화되면서 발전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